

문화

“첼로 콘서트에 오세요 초대권은 없어요”

기획자 김선철·연주자 박문경씨 새로운 시도... 18일 금호아트홀



최근 첼리스트 박문경(사진·광주 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씨 독주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받았다. 보통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팸플릿과 함께 초대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초대권 대신 색다른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초대권 폐지도 동참합니다”라는 글에는 ‘광주가 문화수도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초대권 폐지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티켓이 문화수도를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역 클래식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인 초대권 문화를 바꿔 유료 공연을 정착시키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눈길을 끈다.

클래식 공연 전문 기획사인 T&T 예술기획 김선철씨와 첼리스트 박문경씨가 ‘초대권 없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계 모두 필요성은 느끼지만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기획이다.

김씨는 일단 선 기획료를 받지 않고, 티켓 판매 대금으로 기획료를 정산하기로 했다. 박씨도 자신이 필요한 티켓까지도 직접 구입하는 등 초대권은 뿌리지 않을 계획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은 90% 초대공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초대권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주자나 주최측이나 좌석을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또 워낙 초대권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초대권 숫자를 줄이기만 해도 ‘티켓을 얻을 수 없다’는 문의가 빗발친다. 무엇보다 초대권의 폐해는 티켓을 ‘구입’한 관객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위한 소나타 G단조다. 박씨는 전남대와 경희대 대학원, 독일 국립 쾰른 음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스페인 오케스트라, 광주CBS 메타필로스첼리스트단 단장과 리더로 활동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올해 광주시향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던 서현일씨다.

초대권 문화 바꾸기 ‘작은 움직임’ 주목 “유료공연 정착이 문화수도의 초석 될 것” 문화신포니에타 브런치 콘서트도 눈길

유료 공연은 돈을 지불하고 음악회를 찾은 이들에게 최상의 연주를 들려줘야 한다는 책임감도 부여한다. 김씨는 화환이나 꽃다발, 케이크 등 선물대신 그 액수만큼의 티켓을 구입해 다른 이들에게도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유료 공연을 정착시키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의 레퍼토리는 막스 레거의 ‘첼로 독주’를 위한 조곡 작품 131, 피아의 ‘스페인 노래 조곡’, 쇼팽의 ‘피아노와 첼로를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7-331-6834.

“유료공연”이 얼마나 힘든지는 문화신포니에타(단장 정병렬)의 사례를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문화신포니에타는 지난 8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간단한 차와 맥을 거리가 제공되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클래식 콘서트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공연 전날까지 팔린 티켓은 단 2장.

출연진들과 상의 결과 2명이 오더라도 공연은 계속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브런치 타임에는 30명, 공연시에는 50명이 참가했다. 처음 시작되는 행사라 격려 차 방문한 이들이 많았다.

예상대로 9월 행사에는 참여관객이 20명에 불과했다.

정단장의 고민은 시작됐다. 일단 연주회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10월 공연은 ‘무료’로 진행했다. 북구청의 협조를 받아 관객을 동원했고 참가자는 160여명이었다.

11월 공연을 앞두고 다시 고민이 이어졌다. 결국 유료공연으로 전환해 오는 26일 샤롯데딩에서 다시한번 브런치 콘서트(오전10시~12시)를 열기로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계속 할지는 자신이 없다는 게 정단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김선철씨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초대권을 남발하는 것은 공연계를 황폐화하는 일”이라며 “유료공연 정착은 연주자에게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인기 광주 작가 해외진출 가고 역할

중국 화단 유명 평론가들 호평 잇따라 송중예술축제 한국 대표 참여 등 성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지난해 12월 중국 북경에 문을 연 창작센터가 광주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이 중국 화단 유명 평론가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입주작가들이 송중예술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오픈스튜디오에는 북경중앙미술학원 후징우 교수, 칭화대학 원성권 교수, 난징대학 치우원 교수 등 중국 미술계 거목들이 대거 방문했다. 이들은 제2기 북경 창작센터 입주작가인 박수만(서양화)·기영숙(한국화)·김광철(서양화·퍼포먼스)·최요안(서양화)·김영태(사진)씨의 작품을 둘러봤다. 또 일부 입주작가의 중국 개인전 개최를 논의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거뒀다.

참가해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지역 작가들이 주목 받게 된 것은 창작센터의 역할이 크다. 창작센터는 베이징의 미술 중심지인 파산쯔 환타에 창작예술 지구에 위치해 있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작품이 노출되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준높은 작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중국 화단에 광주 작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지택 관장은 “북경창작센터는 해외 미술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역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고, 이름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 일본 공연

22일 가나가와 가와사키시... 16일 광산문화회관서도



가곡·대목장·매사냥 유네스코 등재될 듯

우리의 가곡과 대목장, 그리고 매사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오는 16일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이들 세 종목에 대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가 심사된다고 14일 말했다.

광주 출신 국악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임방울 국악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경연으로 명성이 높다. 관소리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등 부문별 수상자들은 국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가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의 일본 공연을 개최한다. 한·일문화교류 증진과 함께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교민들에게 조국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

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21~24일 일본을 방문하는 공연단은 22일 오후7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교목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날 공연에는 가나가와현 한국공사와 주재사원 가족과 교민, 일본 현지인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공연단은 관소리 대통령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무용, 가야금 병창, 기악 부문 16명으로 장고춤·승무·교방무 등 한국 전통춤과 ‘새타령’, ‘성주놀이’, ‘진도 아리랑’ 등 흥겨운 민요

다형 김현승 문학제

16일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 낭송회 등 열어



그는 손님이 오면 으레 커피를 끓여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광주 양림동집 근처의 다방에 나가 ‘호을로’ 김현승은 ‘호을’를 꼭 이렇게 썼다. 커피를 마시며 명상에 잠겼다. 그가 전해주는 커피 향에 취해 이성부·조태일·문병란·손광·윤상하·문순태·김준태 등 광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50분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김현승의 시

를 기리는 ‘2010 다형문학제’를 연다. 이날 문학제에서는 시낭송가 이미영(광주시낭송가협회장)씨가 김현승의 시 ‘절대고독’을 낭송하고, 소프라노 구성희(호신대 겸임교수)씨가 ‘가을의 기도’를 부른다. 또 송순섭(광주시립극단장) 명창이 관소리 ‘산줄기 올라’를 들려주고, 문병란·오세영 시인이 김현승의 시 세계를 조명한다. 이 밖에 이은봉(광주대 문학과 교수) 시인이 ‘다형시와 고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한다. 가을과 고독의 시인으로 불렸던 김현승(1913~1975) 시인은 ‘가을의 기도’ ‘눈물’ ‘절대 고독’ 등의 시를 남겼으며, 인간의 고독과 고뇌를 시로 읊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www.geums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 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아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아남점, 남구점. 1관 언스토퍼블 (12세), 2관 심야의FM (18세)/데블 (15세), 3관 부당거래 (18세), 4관 부당거래 (18세), 5관 대지진 (전세)/초능력자 (15세), 6관 불량남녀 (15세), 7관 레드 (15세), 8관 불랑남녀 (15세)/돌이킬수없는 (15세), 9관 초능력자 (15세), 10관 초능력자 (15세). 1관 초능력자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가디언의 전설 (전세), 5관 나탈리 (18세)/돌이킬수없는 (15세), 6관 레드 (15세), 7관 초능력자 (15세), 8관 언스토퍼블 (12세), 9관 부당거래 (18세), 10관 대지진 (전세)/데블 (15세), 11관 언스토퍼블 (12세)/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15세).